'잘하자'

등록 2017.09.12 19:58:05

【서울=뉴시스】박주성 기자 = 12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 대 LG 트윈스의 경기, LG 선발 투수 소사와 포수 유강남이 6회초 이야기를 나누며 그라운드로 향하고 있다. 2017.09.12.

park7691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